東大時報

發行人 白性郁
編輯兼印刷人 守風・崔

發行所 社團法人 東大時報社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電話(3)1685・1686・1687

(週刊)
一部 定價 五百 貳拾 月 十圓

精進惟行
習是捨非
修身自覺
是爲正習
(法句經)

白總長 不朽의 盛事 기리 빛나리

高麗大藏經影印逐的인 歷史

本大學內保存同志會도 設置 十月十二日로 드디어 出刊

本大學校總長 白性郁博士는 就任以來數年間 石渡俗稱 國寶八萬大藏經의 眞價를 全世界에 弘布키爲한 本館을 爲始하여 科學館및 大學本部等 모든지이 學問의 殿堂으로서의 校舍新築에 不朽의 功績을 남긴것은 萬天下가 周知한는 바이거니와 이번에는 東洋思想의 本源으로서 世界的으로 貴重視되고있는 國寶高麗大藏經의 永遠한 保存에 이바지하고저 其間 면밀한 計劃下에 推進中이던 同影印本刊行의 第一次分이 오는十月十二日을 期하여 出刊段階에 놓여 있는 것이다.

即 白總長은 高麗時代에 二四〇年間의 長久한 歲月에서 南으로 東에 亘하여 雜多한 民族들이 많은 歲月을 두고 살아온 記錄이라면 批判이라면 그 얼마나 尊重하여야할 方法이대 介在되었다면은 尚南道 海印寺에 保存되어 있는 八萬餘千面에 亘하는 三藏이라하므로 大藏이라는 말은 三藏이다 갖추어서 藏經이라는 말은 經藏을 가르킨 말이니다 藏 佛語를 經 佛戒律藏 以上을 論 論藏이라 하여 三藏이라한다고 人士들은 闡明하고 平和스러운 공을 擬하여 그들의 뜻을 이루고저 하였다니 例하면 隣邦中國이 嵩山少林寺 燈火가 不絕하던 高麗藏本인 것이다 前者가 書冊으로 保存되었는 것이나 後者는 木刻板으로 保存되었는 것이니 特色이었더라는 것까지 記錄으로 남은것은 아니다. 이記錄이속 裏面上 마저 高麗大藏일 것이다. 이 것을 營造하기에 꾸준한 忍耐와 十七年間의 國家收入全部를바쳐 營造에 成功

高麗大藏經硏究(一)

大般若經譯經과 玄奘法師

禹貞相

一

어느모로 보나 우리民族文化의 總府라고 自負하는 東國學園에서 怪言을 멀리드림으로 위峨한 樓閣을 나란히하고 內山과 허리를 上下가 混然一如하여 民族文化創造의 役軍培養에 餘念없거니와 아울러 우리民族魂의 結晶體인 高麗大藏經을 影印하여 四海에 弘布하고 그本願을 宣揚함은 決코 偶然한일이 아닌것이다.

이제未曾有의 法寶刊行에 臨해서 歡喜踊躍함을 禁하지못하며 影印弘布의 本願에 極微마저라도 報答할가하여 敢히 高麗大藏經의 解說이라하기보다 이번에 刊行한 影印高麗大藏經 第一卷의 內容인 大般若波羅蜜多經의 譯經에 關한것만을 가지고 이 解題中에서 주려서 처음高麗大藏經을 奉讀하는이에게 협력이 되기라도 도움이 될가하여 이를 記하는것이다.

二

이번 影印된 高麗大藏經 第一卷에 收錄한 大般若波羅蜜多經(二卷 全六百卷中 그四分之一)은 百五十卷이 收錄되였다 다음으로 繼續해서 影印될 全二十六卷中에서 四卷이나 차지하는것은 大般若波羅蜜多經은 略稱 大般若經 이라고도하며 범語의 MOHA PRAJNA PARAMITA 라하는 經이다

般若波羅蜜多는 智慧 到彼岸等의 意로써 六波羅蜜中의 하나이다 그러나 般若는 衆妙의 淵府며 群智의 玄宗이며 萬法의 本源인故로 六波羅蜜中 다른五波羅蜜은 오직이의 輔翼인 方便으로 끝는것이다

이와같이 般若의眞髓는諸法皆空 一切不可得의 實相을 觀照하는데 있다하며이로써 二乘의 迷執을打破하고 一切大乘의 根底를 이루고 있는故로 般若波羅蜜多는三世諸佛의 母라 稱讚하였으며 一切佛法을 總括한것으로 大乘佛敎의 根本이라하여 널리尊崇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이 여러經典中 가장 深甚無上의 妙理를 가졌으며 가장 最大의 量을 자랑한 大般若經은 그內容이 頌般若 一萬五千頌般若 八千頌般若 金剛般若等 諸般若經等이 모두 이 大集成 大品 小品 金剛般若等 諸般若經의 敷十種의 經典을 總括하였다. 그成立과 發達에 對해서는 學者間에 異說이 많음 으로 여기서는 略하기로하며 그內容의 槪要만 가지고 註釋이 많이 流行하였으니 梵本으로 現存한것은 十萬頌般若 二萬五千頌般若 八千頌般若 金剛般若 般若心經等이었다 이와같이 般若部의 經典과 그 註釋이 많이 流行하였으니

허멍웨이論 (下)

DONALD RICHIE

李浩成譯

이곳 뒤에 곧 나온것이 『老人과 바다』(一九五二年) 인데 저의 短篇이라고 할만한 짧은 小說로서 씌여 있을뿐만 아니라 그 意圖도 또한眞摯한 作品이다 內容은 巨大한 大魚를 잡고 늙은漁夫가 승에 고기를 잃고다는 民話에 비슷한것이다 『헤밍웨이』 自身은 이 譬喩譚에 가까운 小說에대하여 이렇게말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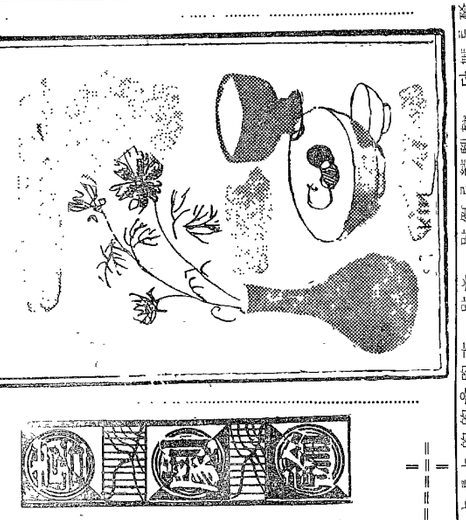
처음에 象徵이라든가 思想的意味를 設定해놓고 그것을 이야기로꾸며놓는 作品은결코 훌륭한 것으로는 되지않는다… 나는(象徵性 따위는 옆에두지않고) 진짜고기와 짜함은 漁夫… 진짜고기와 바다를 만들어 넣려고 애써써 다。…그結果내가 이고기며 바다며 老人을 뛰어놓았다고 할것같으면 그것들은 많은 意味며 象徵을 포함하는것으로 되기마련이다。가장 힘이드는일이란것은 眞實한것으로 만들어그것이 때로는 眞實보다도더眞實한것으로 될수있게 하는일이다。

이 作品은 單純直截한文學의 好例로서 『헤밍웨이』 『헤밍웨이』가 파리에있는 친구에게쓴 엽서의 놀랍이며 『…元來 「헤밍웨이」란사람은 유우모어 感覺으로부터는 쉬나거리가 먼 作家여서 이作品은 대부분大學初級學生의 警句練習에지나지않는것으로 되고말았다 『午後의 죽음』(一九三二年)과 『아프리카의 푸른언덕』(一九三五年)은 『헤밍웨이』自身이 그렇게 불르고 있지는않으나 實質的으로는 엣세이集이다。

『午後의 죽음』은鬪爭에 關한 一連의 엣세이로서여기서 그는 鬪爭에대해서이렇게말하고있다 鬪爭은『…演技者가 죽음의危險속에살며 그演技의 卓越如何가까우는者의 名譽와 깊이關連하는 唯一한 藝術이다』이말은 그의 追從者들이 오랫동안 想定하고 있었던 것을그自身이 言明하것이라고는藝術家로스포오츠맨과 同一視하고있는 것이다 創作이란 熟練한 技術이다 가장重要한 技術이지만 究極은 보여주고 있는것은 長篇小說 보다는 短篇에 있어서 다 그自身이 言明 하고있고 또 이미 定說로되어있지만 그의 長篇은 모두 短篇小說에서 發展한것이며 그自身은 『사실인속 長篇作家는 아닌』것이다。『헤밍웨이』는 短篇小說이란 奇妙한권도美國特有의 文學形式이며 『스리 랜·크레인』이며 『서여윈·앤더슨』의 손으로 完成途上에 남겨져있는것을 發見했다。그리고 그는 이形式에 自己思想의 完璧에가까운 表現體가되기까지 다듬고다듬었던것이다。

短篇小說에 있어서의 그의뛰어난 재강은 이領域에서의 그의自由自在한 솜씨로부터 알수있다 어느날마드란市에서 그날의 鬪牛가 눈으로 말미암아 中止되어 아무것도 할것이 없었기때문에 그는 세개의 有名한短篇을 썼다 『殺人者』 점심後에 十人의 인디안」 그리고 그날밤에는 「오늘는」 그의 短篇集에는 一九二三年作의 「미시간 湖畔에서」부터 一九三八年의 「다리(橋)에있는 老人」에이르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質에있어서 조금高下가 있다할지라도 읽을보람이 있는것이다 조그만傑作인것이다 실지로 하나하나 제대로 完成되여있다。

그러데 「헤밍웨이」의 最上의 作品은味解하여보면 理解하기어려운 困難한바있다 「暴風雨뒤에」처럼 單純한 冒險담이나 「二讀者로부터」처럼 性格寸描는 究極을 보여주고 있는것은 長篇小說 보다는 短篇에 있어서 다 그自身이 言明 하고있고 또 이미 定說로되어있지만 그의 長篇은 모두



(中) 張 漢 基

作家의 作品 3

「문학」은 「문학」을 숭배하는 사람의 人間性을 고양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